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영예의 대상 SBS <고래와 나>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 자료 제공 : 한국방송협회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선정하여 매년 방송의 날을 맞아 시상하는 한국방송대상이 1973년 제정된 이후로 51회를 맞아 지난 9월 2일 시상식이 개최되며, 방송인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시상식 개최 한 달 전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을 대표하는 작품 243편, 방송인 63인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작품상 25개 부문 30편, 개인상 20개 부문 18명이 선정됐다고 밝혔고, 영예의 대상은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되었다.

시청취자의 사랑을 받은 수상자와 작품

SBS TV 생중계로 진행된 이 날 시상식에는 한국방송협회 회원사인 지상파방송 사장들이 참석해 직접 시상에 참여했다. KBS <골든걸스> 양혁 PD, MBC 드라마 <연인>홍석우 CP,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2> 김지우 PD, SBS 드라마 <악귀> 이정림 PD 등 작품상 30편의 대표 수상자들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으며, 김형운 KBS PD, 김대호 MBC 아나운서, 배우 김태리, 작가 김은희, 신계숙 교수 등 개인상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원로배우 이순재, 2024 파리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김민중, 영화감독 장항준 등이 시상자로 나섰으며 가수 이은미, 제로베이스원, 스테이씨, 허용별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작품상과 개인상 수상자를 짧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상은 △뉴스보도 SBS <일손전쟁, 우리는 매력적입니까?> △드라마TV MBC <연인>, SBS <악귀> △연예오락TV KBS <골든걸스>,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 △뉴미디어예능 EBS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시사보도R CBS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킹 사태> △지역다큐멘터리TV 포항MBC <독도 데이터전쟁>, MBC경남 <악마의 생선> 등 30편이며, 개인상은 △공로상 KBS 김형운 △지역방송진흥상 KBC 신종문 △아나운서상 MBC 김대호 △작가상 김은희(SBS 추천) △진행자 신계숙(EBS 추천) △최우수연기자 김태리(SBS 추천) △최우수예능인 곽준빈(EBS 추천) △최우수가수 스트레이 키즈(MBC 추천) △조명 MBC 백광민 △방송기술 부산MBC 문상환 등 18명이 상을 받았다.



제51회 한국방송대상 공식 포스터

우리는 현재 한 해에도 많은 지상파방송 콘텐츠가 선보이며, 인기를 얻거나 시청자의 기억 속에서 곧 잊히게 되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최근 OTT 콘텐츠는 특히 대규모 제작비의 투자와 인기 배우들의 출연으로 관심과 인기를 모두 받고 있지만 그 사이에 지상파방송은 공익적 가치를 바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여 의미를 담은 목소리를 내며, 되짚어보고,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콘텐츠야말로 우리 사회를 바로 보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근원이 된다. 또한, 시청취자의 일상에서 친구가 되며, 언제든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여러 콘텐츠는 각자의 역할과 의의를 훌륭히 펼쳐가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여러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중 선정된 작품상과 개인상 수상자들은 그 가치를 인정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민과 노력, 어려움을 극복하며 시청취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달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이번 수상으로 그나마 위로 받으며, 새로운 콘텐츠를 위한 원동력이 된다면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의 의의이며, 그 역할을 다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광의 대상에 SBS <고래와 나>

이렇게 수많은 지상파방송의 작품 중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에게 울림을 주었던 영예의 대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가 차지했다. 대상을 받은 SBS <고래와 나>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고래 생태계의 균열과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 한국 방송 다큐멘터리 최초로 수중 8K RED 카메라를 통해 고래의 장엄함을 보여 준 작품으로, 국내 다큐멘터리 수준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고품격 콘텐츠를 선사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 상

고래와 나

한국방송대상 수상 소감을 전하는 이큰별 PD

SBS 창사특집 <고래와 나> 기획 의도 중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고래의 세계
그리고,
고래의 삶과 죽음으로 드러나는 지구의 위기

지구를 절반으로 나누면 땅 위엔 인간이 있고,
광대한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고래다.
번식과 출산을 위해 지구 만 바위를 헤엄치고,
한 번의 호흡으로 삼해까지 잠수해 먹이 활동을 하는
고래의 생은 여전히 수많은 미스터리에 쫓겨 있다.

한국 방송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수중 8K RED 카메라의 혁신적 촬영 기술과
오래 기다림 끝에 생생하게 포착한 야생의 고래들...
압도적 스케일로 기록된 초고화질 영상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고래의 모든 비밀이 깨어난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고래의 이상행동,
고래 생태계의 균형은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걸까?
고래의 노래를 찾아 전 지구를 탐사하며 알게 된 충격적 진실.
위태로운 지구 속 버려진 끝에 서있는 고래들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경고가 무엇인지 통찰한다.



<고래와 나> 제작 당시 인간에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도 않는 고래를 화면에 담기 위해 촬영팀은 북극·남극·호주·캐나다·프랑스·아이슬란드·일본·모리셔스·멕시코·몽골·노르웨이·스리랑카·태국·통가·페루·영국·미국 등 전 세계 20개 나라, 30개 지역을 1년 동안 돌며 직접 촬영했다. 촬영된 데이터는 300TB에 달하며 거대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고래의 비밀을 고스란히 담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고래의 이야기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려 냈다.

대상 수상 소감으로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 기획 당시 국내에 고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없었는데, 촬영을 마치고 나서 다른 이들이 안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곱씹을 만큼 힘든 순간이 많았다.”라며 촬영 순간순간이 모두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끝이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준 100명의 제작진에게 감사하며 <고래와 나>를 통해 지구 위기를 진단하는 것은 모험적인 시도로 많은 제작비가 들게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작진을 믿고 지원해 준 SBS 등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10월에 <고래와 나>가 영화로 개봉한다. TV를 넘어 광활한 극장 스크린을 통해 지구를 품은 경이로운 고래의 세계와 그 위대한 여정이 새롭게 관객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시상식 주요 장면



[작품상] 시사보도 부문 수상자



[작품상] 뉴스보도 부문 시상 중



[작품상] 어린이, 뉴미디어, 사회공익의 수상자



[작품상] 다큐TV 부문 시상 중



[개인상 아나운서] MBC 김대호 아나운서



[개인상 작가] 김은희 작가



[개인상 진행자] 신계숙 교수



[개인상 프로듀서] MBC 김지우 PD



[공로상] KBS 김형운 PD



[개인상 지역방송진흥] KBS 신종문 PD



[작품상] 드라마TV MBC <연인>



[특별상] <다큐멘터리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개인상] 경영, 기술 수상자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작 리스트

대상

수상사	작품명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

작품상

부문	수상사	작품명
뉴스보도	SBS	'일손전쟁, 우리는 매력적입니까?' 기획보도
지역뉴스보도	부산MBC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최초 공동검증' 연속보도
시사보도TV	KBS	<추적60분> '학교 밖 르포 - 소년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시사보도R	CBS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킹 사태'
지역시사보도	KBS전주방송총국	<더 보다> '84인의 기록,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공익TV	EBS	<다큐프라임>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사회공익R	TBN대구교통방송	<나는 열여덟 어른입니다>
	KBS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2024 대한민국 1교시 - 손잡고 한 발짝 더>
생활정보TV	EBS	<다큐멘터리K> '책맹인류'
생활정보R	cpbc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문화예술교양	KBS	공영방송 50주년 대기획 <인간 신세계로부터> 4부작
지역교양TV	KNN	9개 민영방송 공동제작 4K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in Asia>
지역교양R	MBC경남	<어른을 찾아서> 5부작
음악구성R	KBS	<출발 FM과 함께> 6부작 대기획 '협주'
어린이	EBS	<딩동댕 유치원>
예능 뉴미디어	EBS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
	MBC경남	<첫문장>
다큐멘터리TV	EBS	<다큐프라임> '돈의 얼굴'
다큐멘터리R	KBS	<2023 제25회 KBS 한민족체험수기>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지역다큐멘터리 TV	포항MBC	<독도 데이터전쟁> 2부작
	MBC경남	<악마의 생선>
지역다큐멘터리R	KBS안동방송국	한글날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여성과 한글 : 내방가사> 5부작
드라마TV	MBC	<연인> *공동수상
	SBS	<악귀> *공동수상
연예오락TV	KBS	<골든걸스>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2>
연예오락R	MBC	<4시엔 윤도현입니다> '애들이 놀자'
지역오락TV	KNN	<하루식당>
지역오락R	TBN강원교통방송	광복78주년 특별기획 오디오 뮤지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특별상	EBS	<다큐멘터리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

개인상

부문	추천사	수상자	작품명
공로	KBS	김형운	<환경스페셜>, <빙하> 등 25년간 KBS의 대표 다큐멘터리 제작
지역방송진흥	KBC	신종문	대표적 지역 프로그램 제작 및 세계화 기여
보도기자	MBC	차주혁	<뉴스데스크> '건설노조원 분신 검증' 외
프로듀서	MBC	김지우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2, 3>
영상촬영	MBC	김화영	<연인>
미술	EBS	이희신	<다큐프라임> '돈의 얼굴' 외
영상그래픽	SBS A&T	성형주	<재벌X형사>
음악	KBS	강진호	<고려거란전쟁> 외
조명	MBC	백광민	<소년판타지>, <가요대제전> 외
아나운서	MBC	김대호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외
작가	SBS	김은희	<악귀>
진행자	EBS	신계숙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시즌4>
성우	SBS	안경진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기술	부산MBC	문상환	'사용자 선택형 UHD 입체 미디어 서비스' 수행 외
최우수연기자	SBS	김태리	<악귀>
최우수예능인	EBS	곽준빈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최우수가수	MBC	스트레이키즈	<쇼! 음악중심>, <MBC 가요대제전>
방송경영	KBS	민지홍	<골든걸스> 사업관리 외